

#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자비행 잇달아

## 호남지역 불교계, 만발공양·김장 나눔 등 진행

추운 겨울을 맞아 독거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자비나눔 실천이 호남지역에서 진행됐다.

광주 대해노인복지센터(센터장 무진, 법림사 주지)는 11월 15일 광주남초등학교 강당에서 지역 관내 소태동, 학동, 학운동, 남구 방림동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들을 초청해 '자비나눔 만발공양'을 진행했다. 올해 6회째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어르신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1부 마가스님과 함께하는 자비명상, 2부 짜장밥과 다과 공양 등이 진행됐다.

이어진 3부 공연에서는 지역서 활동하는 불자봉사단이 참여해 흥겨운 가락과 춤사위, 노래를 선사해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흥겨운 시간을 제공했다.

행사를 주최한 무진 스님은 "해마다 지역 어르신들에게 공경의 의미를 담아 공양을 대접하고 있다"며 "많은 자원봉사자와 이웃들이 마련한 따뜻한 마음의 선물을 갖고 올 겨울에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마가 스님, 금강 스님이 참여해 달라이라마 초청을 위한 서명운동과 홍보활동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광주의 대표적 불교단체인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도 11월 19일 한화금융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김장 담그기 행사를 벌였다. 이날 행사는 한화금융네트

### 대해노인센터, 6회 만발공양 자비신행회, 김장 120상자 전달

워크의 1000만원 지원금으로 80여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절인배추 20kg 120상자를 양념에 버무려 김치담그기를 진행했다.

이날 담근 김치 400박스는 11월 20일 동구청, 조선대노인복지센터, 광주여성의전화, 대평여성청소년의집에 전달됐다.

김상욱 이사는 인사말에서 "엄선된 재료에 따뜻한 정까지 담아 전달되는 김치가 추



광주 대해노인복지센터는 11월 15일 광주남초등학교 강당에서 독거어르신들을 초청해 '자비나눔 만발공양'을 진행했다.

운 겨울을 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요한 생활 양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북지역에서는 4대 종단과 함께하는 김장나눔행사가 김제시 자원봉사센터서 열렸다. 김제지역의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자원봉사자들은 11월 20일 자원봉사센터 광장서 '4대종단과 함께하는 김장나눔사업'을 펼쳤다.

이날 김장나눔행사는 금산사 대형스님, 천주교 주자옥 사목회장, 최재식 목사,

소종현 교무 등 김제지역 4대종교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동참했다.

4대종단 자원봉사자들은 2천여 포기 김장김치를 지역내 독거노인과 장애인, 무료급식소 등 400여곳에 전달했다.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각 종단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져 포근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조동제 전북지사장

## 부안 개암사, 관음전 후불탱화 점안법회

부안 개암사(주지 재안)는 11월 16일 응진전 석가모니불과 관음전 후불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오른쪽 사진>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장 재안 스님을 증명법사로 전통의례에 따라 점안식과 축원, 육법공양 순으로 열린 이날 법회는 선운사 학인스님들과 불자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재안 스님은 축사를 통해 "법회에 동참한 불자들은 부처님 모습뿐만 아니라 가르침과 뜻도 마음에 담아가기 바란다"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신 것처럼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불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재안 스님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불사가 원만하게 회향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불사에 동참한 많은 불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스님은 "예전에 매



우 번창했던 개암사의 위상을 되살리고 불자들의 수행 정진을 위해 신심나는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점안법회를 봉행한 개암사 응진전은 조선숙종 3년(1667년) 조성된 16나한이 봉안되어 있으며 2000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179호로 지정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김영택 화백전... 무각사 갤러리서

### 11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펜화작품 선보여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가 펜화작가로 알려진 김영택 화백 초청 전시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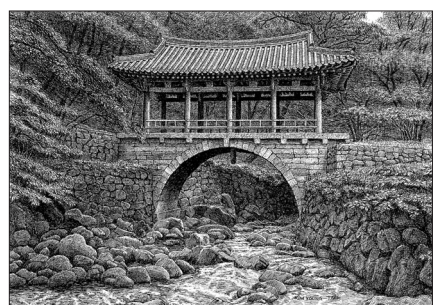
11월 25일부터 12월말까 광주 상무지구 무각사에 위치한 로터스 갤러리는 '펜화에 담은 송광사'라는 주제로 송광사의 여러 전각과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30여 점을 전시한다.

김영택 화백은 세계적인 펜화의 대가로 이번 전시회는 수십만 번의 펜 선으로 이루어 낸 송광사 법당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가히 선(線)으로 표현한 선(禪)의 세계를 펼쳐보인다.

아울러 국내외의 여러 사찰과 사원 모습을 담은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김영택 화백은 전시회에 앞서 작가노트를 통해 "세계적으로 쇠퇴한 펜화의 장르를 되살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 아직 미흡한 상태지만 '김영택 류'라는 이름에 걸맞은 작품들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김 화백은 홍익대 미술대학을 졸업하



김영택 작, 송광사 청량각

고,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심사위원, 세종대 겸임교수로 재임했다. 2002~8년 중앙일보 '김영택의 펜화기행', 2004~5년 주간조선 '김영택의 펜화로 본 한국', 2009~12년 중앙일보 '김영택의 펜화로 본 세계건축문화'를 연재했다.

현재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선정된 한국의 대표작가로 인천공항 입국장에 그의 작품이 6점 상설 전시되고 있으며, 현 한국 문화가협회 초대회장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녹야선원 개원법회... 지역민 포교에 앞장



녹야선원 주지 아도 스님이 깨달음의 상징인 죽비를 봉헌하고 있다.

광주 녹야선원(주지 아도)은 11월 15일 광산구 월계동에 개원법회를 갖고 새로운 포교 보급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법회에는 연광스님(광주불교연합회 회장), 보승스님(세심정사 주지), 해공스님(경서사 주지)을 비롯해 300여명의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아미타여래 점안

식이 봉행됐다. 아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좋은 도량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원한 녹야선원은 전체 150명 규모에 법당과 다실, 공양실이 들어서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전주 금선암 '붓다로 살자' 실천도량 선포



도법 스님은 조계종 중정 진제 스님이 직접 쓴 '붓다로 살자' 휘호를 신도회에 전달했다.

열린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전주 금선암(주지 덕산, 자성과 쇤신 총괄부장)이 '붓다로 살자' 실천도량을 선포했다.

금선암은 11월 15일 극락보전에서 조계종 결사주진보부장 도법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하고 '붓다로 살자' 실천도량 선언 법회를 봉행했다. 도법 스님은 법문을 통

해 "금선암 사부대중이 붓다로 살기 위해 일인된 마음을 꾸준히 실천하고 확대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덕산 스님은 "15년전 미륵향도를 발족하며 제정한 실천강령을 기본으로 구체적인 실천강령을 제정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빛고을나눔나무 2015 불교단체 지원사업 진행

광주지역 불교공동모금회인 빛고을 나눔나무(이사장 영광)가 2015년도 불교단체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광주지역을 대상으로 전체 금액 5000만원을 마련하고, 상반기 봉축행사 공모와 고유목적사업 공모 2가지로 구분해 진행한다.

공모사업 지원신청 자격은 광주지역의 불교신행단체로 불교NGO 및 사회단체, 직능단체(직업별 모임), 학생단체, 사찰 등에서 지원가능하다. 봉축행사 공모는 2015년도 상반기에 열리는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지

원하고, 고유목적사업 공모는 각단체별 목적사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문명배 기획팀장은 "이번 공모의 기본은 광주지역 불교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각 단체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봉축행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모다"라고 밝혔다.

사업 신청은 12월 말까지 소정 양식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설명회 및 1월 중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된다.

빛고을 나눔나무는 광주지역 불교활성화를 위해 지난 11월 3일 창립된 불교단체를 지원하는 단체이다. 정기적 공모사업 외에 불교계 공동모금사업과 지원사업 등을 진행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화순 쌍봉사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인기

화순 쌍봉사(주지 시공)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 돕기에 나섰다. 쌍봉사는 11월 14일, 16일, 18일 등 3일간 경내에서 청정골 이랑 '자연속'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윤달 성지 순례에 나선 불자들에게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판매하기 위해 마련됐다.

판매 품목은 블루베리, 대추토마토, 간장, 된장, 청국장, 녹차, 도라지, 서리태 등 14종으로 생산농가 6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양면사무소 직원들이 근무조를 편성, 바쁜 농가를 대신해 판매를 실시했다.

부안 영도구에서 방문한 한 불자는 "생산지에서 신선하고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터가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도 택배 등을 통해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안병택 이양면장은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다양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 묘법연화경

##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현불샵 리뉴얼 기념 할인 행사  
가격 10만원 ⇨ 9만원

입금계좌 : 동해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詩人 김하리 합장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제15, 중지용출품(21:13)	제22, 속루품(04:36)
CD02-제2, 방편품(46:5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CD08-제16, 미래수랑품(21:15)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03-제3, 비유품(54:48)	제10, 법사품(18:39)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24, 묘법연화경(16:12)
CD04-제4, 신해품(30:24)	제11, 견보탑품(22:19)	제18, 수화공덕품(13:23)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5, 약초유품(16:08)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6, 다라니품(10:07)
제6, 수기품(17:13)	CD07-제13, 권지품(10:07)	제20, 상봉경보살품(13:15)	제27, 묘정왕본사품(14:46)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14, 인력행품(27:27)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